| 차례 |

추천하는 글 | 걸림돌, 디딤돌 • 안경환 5

여기서 쾰른은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살았다 11
엘케 하이덴라이히(Elke Heidenreich)의 기사

리젤(Liesel)과 우르젤(Ursel)-어린 소녀들의 우정 25
우르술라 블루멘펠트(Ursula Blumenfeld, 1931~?)

"히틀러의 사망: 평화와 빵!" 39
엥겔베르트 브링커(Engelbert Brinker, 1883~1944)

의무 수행을 통한 저항 53
랍비 이지도르 카로(Isidor Caro, 1876~1943) 박사

살인적인 배신 65
카를 프랑켄슈타인(Carl Frankenstein, 1891~1941)

"어디로 가세요, 아빠?" 81
니콜라우스 그로스(Nikolaus Groß, 1898~1945)

"쾰른에서는 항상 이방인……" 99
알베르트 카우프만(Albert Kaufmann, 1901~1944)

"전쟁이 끝나면……" 115
게르다 렌네베르크(Gerda Lenneberg, 1904~?) 처녀명 헤르츠(Herz)
롤프 에른스트 렌네베르크(Rolf Ernst Lenneberg, 1930~?)

Bibliografische Informationen
http://d-nb.info/1098340124

digitalisiert durch DEUTSCHE NATIONAL BIBLIOTHEK

"쐐기풀 제거하듯 제거해야……" 131
요제프 요한 뭄부어(Josef Johann Mumbour, 1888~1945)

"일하라, 영원히 살 것처럼. 기도하라, 오늘 죽게 될 것처럼." 149
베네딕트 슈미트만(Benedikt Schmittmann, 1872~1939) 교수

"배은망덕- 그러리라곤 생각조차 하지 않았네……" 165
막스 쇠넨베르크 박사(Dr. Max Schönenberg, 1885~1943)
에르나 쇠넨베르크(Erna Schönenberg, 1892~?) 처녀명 카우프만(Kaufmann)

유랑자의 재산 187
루이제 슈트라우스-에른스트 박사(DR. Louise Straus-Ernst, 1893~1944?)

집도 없고, 무덤도 없고 201
신티와 로마(Sinti und Roma)

주둥이, 가슴 그리고 반짝이는 돌들 215
예술가 군터 뎀니히(Gunter Demnig)
그리고 그의 특징들

기억해야 하는가? 잊으려고 하는가? 223
공식적 발언과 개인적 침묵 사이의 괴리에 대하여

옮긴이의 말 229
감사의 말 239